

역사

1012년전 읍리에 절이 있었고 탑은 羅塔으로 麗初에 세워졌다

읍리 고탑은 언제 세워진 것인지 확실한 연대를 아는 사람이 없다. 다만 1970년경 탑 부근에서 암키와 1개와 수키와 2개가 출토된 바 있다. 암키와는 윗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아랫부분에 「平興國」이라 새겨진 글씨가 남아 있었는데 당시 군공보실에서 가져갔다. 수키와는 검붉은 색, 검푸른 색 2개 다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만일 암키와의 떨어져 나간 윗부분에 「太」자가 새겨졌다면 太平興國이란 문구가 된다. 太平興國은 중국의 연호로 연대는 8년간이었다.

중국 태종 太平興國 1년~보령 8년(고려 5대 경종 1년<976>병자)부터 태평흥국 8년~거란성종통화1년(고려 6대 成宗 2년<983>계미)까지 지금으로부터 1012년전 팔금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와를 만들어 읍리 경내 어딘가에 절을 짓고 탑을 세웠지만 절은 중간에 없어지고 탑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세종장현대왕실록 3 중 조선조 세종 4년(1422) 임인 2월 29일 기록에 「태상왕(太宗 1401~1418)이 성균 직강 권극화를 보내어 나주의 팔흙도에서 沈香을 캐게 하다. 이보다 먼저 극화가 나주 군수로 있을 적에 염분을 살피기 위하여 八畝島에 이르니 작은 비가 풀 속에 있는데, 그 비명에 대략 이르기를 “통화 20년에 중과 속인의 香徒 3백여인이 沈水香을 만드는 일로 충현 정남방 백보 지점에 있었는데, 그 기간은 백년까지라”고 하였다. 극화가 그 글을 써서 올렸으므로 보냈더니 마침내 찾지 못하고 돌아오다」(丙辰·太上王遣成均直講權克和掘沈香于羅州八畝島先是克和倅羅州時因察塩盆到八畝島見短碣在草莽間其銘略曰統和二十年道俗香徒三百餘人爲沈水香事在衝見正南百步限百年 克和寫其文以進故遣之竟不得而還). 통화20년(고려 7대 목종 5년<1002>임인)은 기와를 만든 太平興國연대부터 19년되는 해에 팔금도에 중

과 속인향도 3백여인이라 했으니 절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1989년 10월 2일 읍리 영덕사 朴金光 여스님의 말에 의하면, 대흥사 스님(탑의 권위자)등 세분이 오셨었는데 그 탑을 보시고 신라 때 탑이라 했고, 읍리 뒷산 석벽 아래 옛날에 절이 있었을 거라고 했다는 말을 덧붙여 둔다. 특히 고려 5대 景宗(976-981)의 현숙王后가 신라 최후 敬順王(927~935)의 딸이란 점과 太平興國 및 통화20년이 고려초이기 때문에 탑형이 굳혀지기 전인 고려탑은 있을 수 없고 신라탑이란 견해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倅=地方長官인 郡守로 되어 있으나 觀察使인 듯.

주 : 1. 암키와의 목격자는 현 신안군 환경보호과장 姜星宗씨

2. 수키와의 목격자는 필자.

3. 沈香(沈水香)을 만들려면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굽적굽적한 참나무 토막을 잠겨 넣어 둔다. 그리하여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빠개어 쓰지만 아무리 짧아도 2~3백년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천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다고 한다. 참나무 토막들을 육수와 조류가 합수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들을 위해서란다. 침향을 태우면 향기를 내는 나무로 옛부터 선조들이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애용해 왔다 한다. 沈香은 全北高敞郡富安面仙雲里 질마재 부락민들 선조들의 장구한 시간 의식을 드러낸다고 한다.(1993. 3. 15 경향신문 '沈香'에서)

1995. 10. 25 <瑛>